

“평균 키 되고 싶다” 다리 연장 수술

시장 연평균 8.7% 성장, 2030년 86억불 규모

하지 연장 수술은 전통적으로 기형 교정이나 부상 치료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미적 목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키를 키우고 싶은 수요가 가세하면서 하지 연장 수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41억 달러에서 연평균 8.7% 커지면서 2030년에는 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대퇴골에 금속지지대를 삽입한 모습. 사진=shutterstock

하지만 과정은 쉽게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 신경 통증과 근육·힘줄의 긴장, 매일 강도 높은 물리치료 과정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했다. 심지어 폐색전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에 걸려 응급 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부 고정기 방식을 택했음에도 비용은 약 3만 2000달러였다. 신혼부부가 모아둔 집 장만 자금 일부를 수술에 썼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집보다 진정한 만족이 중요했다’며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이 남성은 “그저 평균 키가 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현실은 키가 여전히 사회에서 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데이트 앱에서는 키로 필터링하는 기능이 도입됐다. 하지 연장 수술을 받은 여성 한 명은 “키는 사회에 남은 마지막 차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최근 키 콤플렉스가 있는 남성이 하지 연장 수술을 받은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 남성은 평균이 안 되는 170cm를 늘리기 위해 이스탄불의 전문 클리닉 ‘워너비톨러’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방식은 다소 극단적이어서, 대퇴골을 절단한 후 외부 고정기인 금속 지지대를 삽입하고, 매일 정해진 횟수만큼 금속 막대를 돌려 뼈 사이 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루 1mm 정도씩 골이 자라나며 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남성은 의사가 권장한 하루 4회 돌리기 대신, 하루 5회씩 강행하며 목표보다 약간 많은 7.3cm를 늘렸다. 결국 그는 177cm로 165cm인 아내보다 커졌다.

코넬대 학생 흑곰 사냥 기숙사서 손질

코넬대 학생 2명이 흑곰을 사냥해 기숙사로 가져와 해체한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아메리카흑곰. 사진=shutterstock

뉴욕주 환경보전국(DEC)과 학교 측에 따르면, 코넬대 학부생 2명은 뉴욕주 사냥 면허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체중 약 120파운드의 흑곰을 사살했다. 코넬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두 학생은 지난 6일 흑곰을 코넬대 기숙사로 가져와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했다”며 “이후 7일 밤 늦게 민원이 접수돼 경찰 보고가 이뤄졌지만,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르면 흑곰은 뉴욕주 중부에 위치한 제4권역에 속한 지역에서 사냥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건은 코넬대와 이타카가 속한 톨킨스 카운티가 아닌, 동쪽으로 세 카운티 떨어진 오즈이고 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DEC는 이번 사건이 환경보전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넬대는 공식 마스코트는 없지만, 스포츠팀 ‘빅 레드’를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 곰은 상징적 존재다. 농구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는 코넬대 유니폼을 입은 곰 인형이 자주 등장하며, 으르렁거리는 곰 이미지는 학교 상징물과 기념품 곳곳에 활용되고 있다.

사건 직후 DEC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DEC에

네 쌍둥이 조산 병원비 404만불

부담 줄이려 직장 그만두고 메디케이드 가입

오하이오주에서 네 쌍둥이를 조산한 산모가 404만 달러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24세 산모는 임신 28주 만에 네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아이들은 두 곳의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오가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산모는 이 엄청난 청구서를 틱톡에 공개했고, 2만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용자들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같은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도 자신의 거액 NICU 병원비를 떠올리며 공감했다.

NICU 치료비는 미국 가계가 얼마나 쉽게 의료비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소아과 연구에 따르면, 조산아 한 명이 NICU에 입원할 경우 중간 치료 비용은 약 7만7천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수술, 장기 입원, 퇴원 후 추가 치료비까지 합치면 캐슬 가족이 맞닥뜨린 7자리 수 병원비가 설명된다.

산모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 중 직장을 그만두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했으며, 출산 후 첫째에는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며 아이들을 도왔다. 그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일부 비용을 보전하더라도 본인 부담금, 공제액, 네트워크 외 진료비 등으로 수만 달러가 남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현재 1억 명이상이 의료비 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는 임신·출산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 산모의 사연은 단순히 네 쌍둥이 출산이라는 특별한 경우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단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진단, 한 번의 복잡한 출산만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시니어 메디칼 무료 신청 및 관리

65세 이상 메디칼 신청 도와드립니다.

- 자산 폐지로 인한 메디칼 자격 쉬워져
- 인컴으로만 메디칼 신청 가능
-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싱글 메디칼 신청 가능
- Share of Cost 분담금 삭제 신청

이제 메디칼 신청 / 메디칼 서류 관리를 하나로! 매주 목요일 부에나팍 오피스에서 상담드립니다.

2025년

시니어 메디칼 자산제한 폐지!

*** 65세 이상 보유 재산 규정 없애 *** 인컴 조건만으로 메디칼 신청 가능!



KCSS 시니어 서비스 213.220.6620 / 323.628.5376